

2020년 제1차 3x3 농구 위원회 회의 결과

협회는 2020년도 제1차 3x3 농구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회 의 명 : 2020년 제1차 3x3 농구위원회 회의
2. 일시/장소: 2020. 1. 15.(수) 10:30~11:54 / KUSF 회의실
3. 성원.개회: 재적위원 7명 中 6명 출석
4. 전차회의록 초록 보고
5. 보고사항
 - 가. 2019 KBA 3x3 코리아투어 1~5차 총괄 결과 보고
 - 나. 2020 KBA 3x3 코리아투어 및 대회 일정 보고

발언 위원	발언 내용
장국호 위원	여자 국가대표 감독의 채용에 대한 질의
김세환 위원	코리아투어에 여자 종별 지속적 홍보
장국호 위원	국제대회에 여자 청소년 대표 파견 의견 제시, 초등대회 스폰서 업체 섭외 노력
정한신 위원	3X3 여자 선수 양성책 필요, 초등대회 물품과 현금 지원 업체 섭외 노력
김세환 위원	한 업체가 어려우면, 메인 스폰서와 서브 스폰서로 구분해서 섭외 제시

6. 심의사항 및 의결내용

심의사항	의결내용	비고
① 2020도쿄올림픽 예선 및 FIBA 3x3 Asia Cup 파견 국가대표 선발전 겸 KBA 3x3 농구 대회 개최의 건	▶ 대회 개최 및 트라이아웃 실시 원안 의결 함. ▶ 트라이아웃 심사위원 선정	• 정한신 위원-매년 지속적으로 개최가 가능토록 노력 • 트라이아웃 심사위원- 김세환, 장국호, 여봉구, 구정회, 정한신 위원- 선정 • 위원 전체 동의
② 2020 KBA 3x3 코리아투어 개최의 건	▶ 2020년도 KBA 3x3 코리아투어 1차~5차 대회 및 초등학교 대회 개최 원안 의결 함.	• 정한신 위원-지방대회 참가팀이 저조하니 숙박 등 혜택 부여 의견 제시. • 여봉구 위원-청소년수련관 협조를 받아서 저렴하게 이용토록 업무 조율 제시 • 장국호 위원-모집요강이 공지되면 참가팀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혜택 부여 및 환경 조성 필요 • 박 한 위원장- 초등학교 대회 타이틀 스폰서 유치에 모든 위원들이 노력해 주시고 코리아투어 개최의 건 원안 가결
③ 2020 KBA 3x3 코리아투어 및 코리아리그 운영 방안의 건	▶ 2020년 KBA 3x3 코리아투어 및 코리아리그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의	• 김세환 위원-3x3 농구 활성화차원 소년체전, 전국체전 종목에 추가위해 협회에서 노력해 주기를 당부(중장기적 계획 수립 의견 제시) • 정한신 위원-현재 선수층이 없다 대학스포츠협의회, 중,고연맹 대회가 개최되니 지자체와 매칭을 시켜 팀을 구성 할 수 있도록 노력 • 여봉구 위원-전년도 예산 계획과 금년도 예산안들이 확정된건지/학교스포츠클럽에 3x3종목 추가 협회의 노력 필요/5x5 육성과 같은 3x3 육성

		에 협회 차원에서 노력 필요 • 박한 위원장-협회에서 노력하지만 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하겠음.
③ 기타토의	▶ 신임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한국 3x3연맹 신창범 부회장을 위원으로 위촉 의견을 제시	• 박한 위원장-위원회 회의시 여러번 이야기 나온 사항임. 3x3연맹 신창범부회장을 위원으로 위촉하자는데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위촉하는게 좋음. 위원 위촉은 회장님 권한 사항이므로 신임 위촉에 대해서 협회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이 타당함 • 김세환 위원-여러번에 걸쳐 회의시 논의된 사항이며,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 하였으나 협회 차원에서 위촉한다면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 여봉구 위원-이미 카톡방에 공지를 했을 때 이미 수용. 회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수용 한다고 생각 했다. 하지만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에게 설명하기위해 기타사항에 올라온 것 같음. • 권부원 위원-협회차원에서 위촉 했으니 사후에라도 양해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 같다. 위원들의 반대에도 위촉하는 것은 협회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 위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 장국호 위원-위원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은 없다. 위촉되면 같이 열심히 해야 함. • 권부원 위원- 3x3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찬성하지만 탁월한 능력이 있거나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 함. • 정한신 위원-이외에 다른 단체가 있는데 연맹 부회장님이 들어오면 이번 올림픽 예선 출전권 획득에 기여한 kxo 단체도 있는데 괜찮은지? • 박한 위원장-다른 단체에 대한 것은 추후에 이야기가 나오면 논의해보기로 하고 현재 신창범 부회장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게 좋음. • 권부원 위원-이 기회에 본 협회에서 각 단체 흡수 통합 하는게 어떤지? 각 단체 대표를 위원회로 포함해서 한국 3x3 협의체를 구성해서 활성화를 논의하는 장으로 만들어 보는게 어떤지? • 박한 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을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의견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럼 신창범부회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폐회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농구협회 3x3농구위원회